

금호타이어, ‘합평신공장 시대’ 본궤도 올랐다

빛그린산단 부지서 공장 건설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
무사고·무재해 기원...안전 최우선 원칙 의지 등 다져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사고를 딛고 합평 신공장 시대를 본격 연다.
금호타이어는 22일 합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합평공장 건설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경영기획본부 임완주 전무, 안전생산 혁신본부 황호길 전무, 합평공장건설단 정영모 상무, 설비구매담당 김동환 상무, 노동조합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노사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합평공장 건설공사의 무사고·무재해를 기원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안전 최우선 원칙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기원제 소개를 시작으로 정일택 대표이사과 정중오 전극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대표회장의 인사말,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의 기원문 낭독,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에 이

어 기념촬영과 음복 순으로 진행됐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합평신공장은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현장으로 더 높은 품질과 더 강한 기술력을 향한 도전이자, 미래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기반이다”며 “합평신공장을 ‘가장 앞선 공장’이기 전에 ‘가장 안전한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전기원제가 합평신공장 착공의 합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 현장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중오 대표지회장은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안전하고 사고가 없는 공장이 건립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 17일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자체 수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금호타이어는 22일 합평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합평공장 건설 노사 합동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합평신공장 건설 1단계에는 6609억원이 투자된다. 연간 타이어 530만본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련고무 700만본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형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스마트 제조설비 및 친환경 공정을 갖춘 공장으로 진행된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조역량 고도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을 확보함으로써 금호타이어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HD현대삼호·HD현대로보틱스, 스마트 조선소 구축 ‘맞손’

로봇·AI 기반 생산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목표 MOU

HD현대삼호가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제조 혁신에 나선다.
HD현대삼호는 22일 회사 본관에서 김재를 대표를 비롯해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산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 현장 검증 및 표준화, 조선업 특화 로봇 기술 연구 등 단계별 협력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추진한다.
특히 HD현대삼호의 조선 생산 전문성에 HD현대로보틱스의 로봇·비전·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정 단축 및 품질 향상 등의 성과를 창출해 글로벌 조선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수 대표는 “이번 협약은 로봇 솔루션의 적용 범위를 조선·중공업 영역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HD현대삼호는 22일 회사 본관에서 김재를 대표를 비롯해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산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계기”라며 “그를 내 스마트 조선소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를 대표는 “조선 산업의 미래는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생산체계에 달려 있다”며 “양사의 기

술 역량을 결합해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영남=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수출 중소기업 69% “내년 실적 개선될 것”

중소기업중앙회, 1300곳 조사...대의 불확실성은 부담

국내 수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 수출 실적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중소기업 (68.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중소기업 (31.4%)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86.4%)과 의류·바이오 (86.1%) 수출 기업이 내년 수출 전망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 증가를 예상한 이유 (복수응답)로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으로 응답한 기업이 47.1%로 가장 많았고, 수출시장 다변화 (29.8%)와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 (2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한 중소기업들이 예상하는 가장 큰 어려움 (복수응답)은 ‘중국의 저가 공세

심화’ (49.3%)였다. 이어 환율 변동성 확대 (44.6%)와 원부자재 가격 급등 (37.0%), 미국·EU (유럽연합) 관세정책 불확실성 (35.0%)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수출 실적 감소 시 대응 계획 (복수응답)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 (28.2%)와 품질 개선 또는 신상품 출시 (23.0%), 인력·원가 등 생산비용 절감 (21.8%) 등을 꼽았다.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수출 시장 (1+2+3순위)으로는 고율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21.0%)이 가장 많이 선호됐고, 유럽 (15.2%)과 일본 (10.6%), 중국 (10.6%)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 수요 (1+2+3순위)는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53.5%)가 압도적이었다. 이어 중국 저가 공세 대응 체계 구축 (35.8%)과 미국·EU 관세 대응을 위한 외교 강화 (35.1%), 외국 (신흥시장 등)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31.5%), 외국 인증·규제 대응 지원 (27.2%) 등을 꼽았다.
김민지 기자 riozyb@gmail.com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



고영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양임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귀성 의원
(경제복지위원장)



이숙희 의원
(안전도시위원장)



최기영 의원



김영순 의원



주순일 의원



김건안 의원

을 한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한결같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기대서 의원

전미용 의원

강성훈 의원

정상용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정달성 의원

정재성 의원

신정훈 의원

인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